

■ 여당 5·31 참패 ... 부동산 정책 재검토 방향

열린우리당이 5·31 지방 선거 이후 부동산정책을 시정 또는 개선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재건축 아파트 규제 완화 등 부동산정책 변화 여부를 놓고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정부는 재건축아파트가 부동산시장 불만의 '진원지'라는 판단 아래 재건축개발이완수법 등 강도높은 정책을 펴온 만큼 열린우리당이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경우 당·정간 갈등도 예상된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이 우선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부동산정책은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와 거래세의 손질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시장 규제 완화 관심 초점=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의 경우 집값은 잡지 못하면서 실수요자들이 강남으로 진출할 기회만

거래세 손질·재건축 규제 완화 관심

개발이익환수법 등 당정갈등 예상
취득세·등록세 인하가 검토 1순위

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재검토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보유세 강화 등 집값을 잡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나왔으나 집값 잡기 때문이라는 업계의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RE멤버스 고종환 대표는 "9월부터 재건축아파트에 부담금이 부과되는 등 충분한 환수대책이 마련된 만큼 충고제한, 용적률제한 등의 규제는 완화해 재건축 여부를 시장이 판단하도록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재건축시장 완화를 둘러싼 신중

론도 여전히 있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스피드뱅크의 김광석 리서치센터장은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긴 했지만 부동산가격 급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면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과 관련해 늘어나는 가구수의 20%를 소형 평형으로 짓도록 하는 규제의 폐지도 진지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거주공간도 넓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형 평형 의무건설비율을 유지하는 것은 가뜩이나 부족한 중대형 평형을 더 좁히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거래세 손질 여부도 관련=열린우리당이 국민에게 부담을 안겨 준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데서 부동산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한 만큼 1차적으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의 인하가 검토대상 1순위에 오를 전망이다.>

일단 부동산 거래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수와 거래세 세수 등을 감안해 적절한 시점에서 내린다는 것이 정부의 당초 입장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에서는 인하시기, 인하폭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이 나오지 않았고 인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았던 만큼 정부의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적지 않았다.

다만 정부·여당은 이번 선거 참

패를 계기로 거래세 인하폭을 확대하고 시행시기도 앞당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거래세는 올해 1월부터 개인간 주택 등록세율은 1.5%에서 1.0%로, 개인간 취득세율은 2.0%에서 1.5%로 각각 인하됐다. 재산세에 대한 탄력세를 적용요건을 엄격히 하려는 계획도 이번 선거결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지자체별 재산세의 50%를 깎아줄 수 있도록 하는 현행 탄력세율제도가 '동일가격 동일 세금' 원칙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적용기준을 대폭 강화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열린우리당이 선뜻 나서줄지는 상당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알림

2006 광주·전남 부동산 전망 세미나

8일 광주시 여성발전센터

터에서 개최합니다.

광주일보사는 국내 최대 부동산정보전문회사인 부동산114(주)와 함께 '2006년 광주·전남 지역 부동산시장 전망 세미나'를 8일 오후 2시 광주시 여성발전센터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과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부동산 환경에서 지역민들의 효율적인 자산 포트폴리오를 위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 일시 : 2006년 6월8일(목) 오후 2시
- 장소 : 광주시 여성발전센터
- 참가인원 : 선착순 300명(사전 접수자에 한함, 무료)
- 초청강사 및 강의주제
 - ▲ 노경수 광주대 교수-광주·전남지역 토지시장 전망
 - ▲ 김희선 부동산114 전문-부동산 정책변화와 아파트시장 전망
- ※ 참가신청은 반드시 부동산114호남지사에 전화(062-524-7114, 070-7011-7114) 또는 홈페이지(www.r114.co.kr)로 사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光州日報社·부동산 114

콜금리 '인상' VS '동결'

금통위 결정 앞두고 전망 팽팽

오는 8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콜금리 결정을 앞두고 금융 전문가들의 전망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5·31 지방선거가 끝난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뜸해지고 미국 추가 금리인상을 검토하는 등 금리인상 요인이 많지만 경기 여건이 민감한 상황에서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결정적 제약요인도 버티고 있다.

경기·환율·물가·부동산시장 등 다양한 변수들의 방향성도 명확하지 않아 투자자에게는 인상론의 근거로, 혹은 불투명한 요인이 만개해 있다.

5·31 지방선거 종료는 6월 금통위에서 새로 부각되고 있는 금리 인상론의 주요 근거 중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그동안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 급락을 막기 위해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을 흡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제는 반대로 선거가 끝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상대적으로 부동산시장 등에 대한 각종 규제에 융통성 있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야당의 승리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위협을 받게되면서 정책 당국으로서 강한 입장을 천명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장에 널리 풀린 유동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동산시장의 존재도 금리인상 요인인 것이다.

지금까지 16번 연속 금리를 0.25%씩 인상할 만큼 일관성을 보여온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정책도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원래 미 FOMC는 조만간 금리인상 행진을 마무리할 것인 주장이 대세를 이뤘지만 최근 제기된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의 추가 인상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역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지 않더라도 경기가 격정되고 그대로 두자니 인플레이션이 열려버리는 애매한 상태다.

그러나 경기지표는 '적신호', 경기는 회복 국면에서 잠시 조정을 받는가 하더니 최근에는 '조정'이 '둔화'로, '둔화'가 '하강'으로 어휘 사용이 바뀌고 있다.

/연합뉴스

바이오디젤사업 안착할까

7월부터 본격 주유소 출시

신재생 및 친환경 에너지원 도입을 위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디젤 사업이 본격적인 개시 한달을 앞두고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7월 본격적인 주유소 출시를 앞두고 있는 바이오디젤 사업을 위해 SK(주)는 이미 바이오디젤 원액 공급업체 선정을 마무리지었고 GS칼텍스와 예스-오일 등 조만간 복수 공급자 선정을 마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는 올해 7월부터 초기 2년간 주로 판매되는 바이오디젤이 BD5(대두유나 팜유 등에서 추출한 바이오원액에 일반 경유를 5대 95대의 비율로 섞은 연료)로 연간 9만kl 이상의 바이오 원액이 소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유업체에 따르면 연간 2천kl의 정유사가 바이오 원액과 일반 경유를 0.5대 99.5의 비율로 혼합했을 때 최대 예상 소비량이다.

아울러 정부는 정유사들의 품질 안정성 보장 요구를 받아들여 2년간은 바이오원액 혼합 비율을 5%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토록 했다.

따라서 정부 발표와는 달리 초기 2년간 시중에 주로 유통될 제품의 사양은 BD5가 아니라 사실상 BD0.5로

바라한다는 게 정유업체의 설명이다. 더욱이 정부가 최종 목표로 설정한 BD20의 경우 정유사들이 아직까지도 휘발유 등 기존 연료보다 응고점이 높고 산성이 강해 고무재질이 쉽게 부식되기 때문에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부적합하다고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바이오디젤 원액 공급 사업을 추진해오던 SK케미칼과 예정유화 등 대기업들이 사업권 등록을 하지 못하면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오히려 대기업이 차별을 받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서 가야에너지, 단석산업, 바이오매에너지, 무등바이오에너지 등 산업자원부와 자발적 공급협약을 맺은 8개 중소 바이오디젤 생산업체들은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내용의 건의문을 대한석유협회와 산자부에 제출하면서 대기업의 입지가 상당히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같은 예상은 바이오원액 시장이 연간 2천억원밖에 안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현 정부의 정책 화두로 부상한 만큼 중소기업체들의 목소리가 상당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상황적 판단에서 비롯됐다. /연합뉴스



해변으로 간 女心 4일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찾은 여성고객들이 올 여름 해변가에서 신을 수 있는 비치샌들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못 거둔 세금 14조 2,000억

정부, 작년 국제 ... 6조9,470억 결손처리

지난해 정부가 징수를 포기한 6조9천470억을 비롯해 모두 14조 2천470억의 국제세 결손처리를 나타냈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05년도 정부결산 결과 재정경제부 소관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143조9천800억원 가운데 9.9%인 14조2천369억원을 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경부 소관 일반회계는 국제 수입과 세외수입으로 이뤄지는데 미수납결손액은 모두 국제수입에서 비롯된다.

지난해 미수납결손액은 2004년의 13조6천559억원에 비해 5천477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이 가운데 징수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는 미수납액은 7조2천566억원이었고 납세자가 세금을 내지 않아 끝내 결손처리한 불납결손액은 6조9천470억원이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불납결손액은 징수결정액의 4.8%로 채납자의 자금이 없어 결손처분한 금액이 4조8천272억원, 시효완성·거소불명 등의 이유로 결손처분한 금액이 2조1천198억원으로 나타났다.

불납결손액과 징수결정액 대비 불납결손비율은 최근 몇 년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국고 손실을 키웠으나 지난해에는 증가세가 진정되는 모습이었다.

이 금액과 비율은 ▲2002년 5조6천886억원(4.7%) ▲2003년 6조5천375억원(5.1%) ▲2004년 6조9천534억원(5.3%) 등이었다. 감사원은 지난해 결산감사에서 과다한 결손처분은 향후 세무담의 행정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축소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재경부에 지시한 바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삼성SDI, 세계 최초 유기발광다이오드 개발

삼성SDI는 고해상도의 3차원 영상을 구현할 수 있는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 OLED)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4.3인치 크기의 이 제품은 3차원 디스플레이 가운데 최고 해상도(WQVGA급·480×272픽셀)를 갖췄으며, LCD에 비해 한층 자연스러

운 색감으로 굵김없이 입체영상을 구현할 수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3차원 디스플레이는 사람의 두 눈에서 서로 다른 이미지가 형성되도록 해 거리감과 입체감을 구현하게 하는 최첨단 기술로 일본의 산요, 네덜란드 필립스 등 디스플레이 업체들도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삼성SDI는 내년에 휴대전화용 제품을 상용화하는데 이어 노트북 컴퓨터와 모니터, TV에서도 3차원 영상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제품은 오는 6-9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제44회 국제정보디스플레이학회(SID)에서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함께 일합시다



업 제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서울검사*	2006년 정규직 비파괴검사사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6/07	062-369-0790
*열린엔피코리아	알앤피호남법인 냉동영업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08	062-959-2663
GM대우자동차판매	2006 정규직 신입 및 경력사원	초대졸/경력무관	3,000~3,200	06/08	062-942-9234
이지디지탈*	자재관리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09	062-955-0801
정광건축*	경리 여직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09	062-955-6081
*대광건설	토목 및 건축 경력사원	고졸/경력년	회사내규	06/09	062-360-9432
주식회사 자연	상품 인출고 재고관리-현장직 남직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10	062-372-0035
D.J OUTDOOR (동일물산*)	등산/낚시 고어텍스 아웃도어용품 판매/샘플직업	고졸/경력년	회사내규	06/10	010-4609-1001
리얼건축사사무소	건축설계/검리	초대졸/경력무관	1,200~1,400	06/10	062-655-7321
윤선생영어교실	[북구]관리선생님/상담선생님	대졸/경력무관	2,000~2,200	06/12	062-526-0565
*아이미산전	경리/회계/총무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6/12	062-951-2332
*국제컴퓨터이커데미	국제 컴퓨터 학원 그래픽 강사	초대졸/경력무관	1,200~1,400	06/13	062-223-6123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기업 2.3세 젊어졌다

2000년대 이후 평균 연령 낮아져

2000년대 들어 국내 기업의 평균 연령이 2.3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체 운영하고 있는 기업정보 포털사이트인 코람비즈(www.korchambiz.net)에 포함돼 있는 28만여개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분석·발표한 자료에서 기업들의 평균연령이 외환위기를 거친 이후 상당히 젊어졌다고 4일 밝혔다.

이 조사에 따르면 2006년 5월말 현재 국내기업의 평균 연령은 10.4세로 6년 전인 2000년보다 2.3세 젊어졌다.

산업별로는 통신업(6.3세), 사업서비스업(7.9세), 숙박 및 음식점업(9.2

세), 도소매업(9.3세), 건설업(9.7세), 교육 서비스업(10.7세) 등 서비스분야 기업의 평균 연령이 전체 평균을 밑돌았다.

금융 및 보험(22.1세)과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13.5세), 운수업(12.8세), 제조업(11.0세) 등 전통 산업 분야의 기업연령은 업계 평균보다 높았다.

이는 서비스분야에서 기업신설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등 산업구조의 서비스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 제조업을 비롯한 전통산업의 분야에서는 휴폐업 및 업종전환이 진행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로또복권 (제183회)					팝콘복권 (제6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02 18 24 34 40 42	05				1등	10억	2조 701362
등 위					2등	5억원	2조 701364
1등	6개 숫자 일치				3등	1천만원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1,777,221,500					4등	1백만원	각조 47969
2등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5등	1만원	각조 505
71,088,860					6등	2천원	각조 26
3등	5개 숫자 일치				7등	1천원	각조 21
1,373,433							
4등	4개 숫자 일치						
52,944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